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문화산업 전망과 계획

<2007-2008 중국문화산업 분석 및 투자자문보고>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문화산업 발전추세 분석

첫째, 거시적 형세가 문화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 형세의 발전특징으로부터 출발하여 "11차 5개년 계획"의 출범에는 일부 중요한 정책적 형세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여 내수를 자극하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것인데 이는 전체 국가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방침과 추세가 되었다. 문화산업 발전을 놓고 볼때 이와 같은 형세는 훌륭한 전망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 거시경제 제어정책이 점차 내수를 독려하고 있어 국내의 소비시장이 가동되고, 문화산업에 큰 발전 전망을 갖게 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주민소비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소비, 교육소비와 문화소비 등 세가지 지출은 사실상 플라스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주민소비에서 의료문화소비가 많고 교육소비가 많을수록 문화소비가 많다. 중국에서 의료와 교육 두가지 분야의 공공서비스체계 구축에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 소비지수를 많이 점했기 때문에 주민소비는 끊임없이 성장하지만 효과적인 문화지출에서는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문화공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면에서 촉진이 있으면 주민의 효과적인 문화소비 수요를 크게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문화체제의 개혁

"제10차 5개년 계획"의 첫번째 년도에 문화산업을 제출하고부터 2003년의 문화체제개혁 시범에 이르기까지 2005년에 이르러 시범이 기본적으로 끝났으며 2006년부터는 문화체제개혁 시범이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문화체제 개혁의 시범은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미 추진역할을 하고 있다.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문화체제 개혁이 전면적으로 펼쳐짐과 동시에 시범 총화의 상황에서 문화체제개혁의 목표 및 모델은 이미 기본적으로 맥락이 명확해졌고 문화산업 구도를 새롭게 판단했는데 첫번째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산업구도이고 두번째는 민족문화를 주체로 외국의 유익한 문화를 흡수하는 시장구도이다.

문화체제, 문화산업과 문화시장에 대한 기본 판단은 체제의 차원, 정책의 차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추진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소유제를 주체로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산업구도를 중시하는 것이 비교적 중요하다. 문화산업 발전 차원에서는 저장량 영역과 증가량 영역에서 비교적 큰 발전 속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2003년 국가통계국의 데이터를 보면 신흥 문화산업의 발전속도는 전통 혹은 핵심 영역, 특히는 국가소유 문화기구가 관장하던 핵심영

역의 발전속도보다 빨랐다. 생산액은 서로 접근했지만 취업수량은 신흥문화산업이 1배가 많았다. 이런 추세는 최근 2년간 지속되고 있다. 주요원인은 우리의 체제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정부 소속의 문화기구가 주관하던 데로부터 전체 사회의 문화기구를 주관하는 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문화체제개혁 시범지로 부터 경험을 총화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원칙을 놓고 볼 때 통일된 시장이 점차 형성될 것이며 저장량과 증가량 영역의 체제 상의 장애는 점차 타파될 것이며 문화산업의 발전은 "11차 5개년 계획"기간, 전체 국민경제의 큰 시장에 융합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개혁 추세는 산업발전에 매우 유리하다.

셋째, 기술 진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정보산업과 관련된 문화산업을 발전"시킬것을 최초로 제출해서부터 정보산업과 문화산업의 관계 문제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올려 놓았다. 아울러 중앙의 문건에서도 기술진보에 주의를 돌리고 추진하는 것이 문화산업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의의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10차 5개년 계획"기간, 전반 기술의 진보, 정보산업의 발전이 문화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 기술진보가 문화산업에 대한 추진 역할이 부서간의 체제제한, 체제성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으킨 역할이 갈수록 뚜렷해 졌으며 신흥 문화산업 영역의 역사적인 짐이 적은 편으로 시장을 기반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런 기술자체도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감독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신흥문화 산업의 발전이 새로운 문화관리 체제의 출현을 부르는 것은 체제내의 문화체제 개혁에 대해서도 추진역할을 불러 일으켰다. 이점에서 기술진보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놓고 볼 때 다음 5년동안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넷째, 지역 연관 발전

중앙의 "11차 5개년 계획"에서 지역의 문제,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점이다. 문화산업 발전의 지역발전 문제에서 전국 각지,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성에서 문화 대성(大省) 설립을 제출했으며 거의 모든 성(省)에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11차 5개년 계획"의 중점사항으로 편입시켰다.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문화산업에 대한 발전조건은 같지 않고 전략 중점도 일치하지 않다. 그러나 모든 지방의 문화산업이 지역별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추진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동부지역은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수준이 높은 편으로 문화산업은 외향형 산업을 특징으로 국제시장에 융합할 수 있다. 중국의 중부와 서부는 발전수준이 낮고 일부 지역은 자원조건의 제한을 받기에 문화산업의 발전은 해당 지역문화발전의 로직과 발전경로를 조정할 수 있다.

다섯째, 농촌문화발전

2005년 년 말, 중앙은 <농촌문화를 진일보 발전시키는데 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 문건은 문화체제 개혁의 정신을 충분히 구현했다. 과거, 농촌문화 건설이라고 하면 공유문화 건설의 입장에서 국가 재정부에서 돈을 내고 정보를 농촌에 내려 보내

는 것으로 이해했다. 현재 중앙의 문화기점은 전체 농촌발전의 체제환경의 전체적인 재조정 진행, 즉 농촌의 문화건설을 새로운 체제기초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농촌 공공문화 체제의 구축을 계속 강화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농촌문화 시장을 개방하는데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농민의 문화수요는 기본수요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다양화, 다차원의 문화수요도 이미 나타났는 바, 이런 수요를 만족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전반 농촌문화 건설도 농촌체제문화 개혁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체제에 이전되었다. 도시(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었기 때문) 혹은 도시와 농촌사이에서 통일적인 문화시장을 설립할 수 있다. 전반 문화산업 배치에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도 감안해야 한다. 이는 비교적 중요한 발전추세를 시사하고 있다.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문화산업의 지도사상

(가) 지도사상

마르크스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과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과학발전관을 통솔로 하여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전진 방향을 파악하면서 사오캉사회의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요구를 둘러싼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과 개혁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정신을 선양하면서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적으로 시대와 함께 진보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는 새로운 문화발전관을 수립한다. 현대화, 세계, 미래를 지향하는 민족의 과학적인 대중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날로 성장하는 군중들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키고 뜻을 품고 덕을 갖추었으며 문화가 있고 기율을 지키는 사회주의 공민을 키우면서 전 민족의 사상도덕과 과학문화 자질을 높이고 인류의 전면적인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추진한다.

(나) 방침원칙

"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중국의 문화발전은 아래의 방침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견지하면서 실제와 생활과 군중에 접근하는 원칙에 따라 주요한 선율을 선양하고 다양화를 제창한다.

인간중심의 원칙을 견지하고 인민군중의 기본문화 권익을 보장하고 실현하여 광대한 인민군중이 문화발전 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과학이론으로 무장하고 정확한 여론으로 지도하며 고상한 정신으로 사람을 키우고 우수한 작품으로 고무하면서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새로운 문화발전관을 수립하는 것을 견지하고 문화발전의 지위, 방향, 동력, 사고방향, 구도와 목적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하여 문화발전을 촉박하는 사상관점, 방법, 규정과 체제 메카니즘 장애를 타파하고 문화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문화와 경제, 정치,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우수한 민족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것을 견지하고 세계 각국의 우수한 문

화성과를 흡수하고 배우면서 문화창작을 문화발전의 전략적 기점과 전진의 동력으로 삼고 문화와 경제, 과학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하도록 적극 추진하면서 중국문화의 독자적인 혁신능력을 높인다.

사회효과를 첫번째 자리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사회효과와 경제효과의 통일을 실현하면서 문화로 사회를 인도하고 인민을 교육하며 발전을 추구하는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

발전을 주제로 하고 개혁을 동력으로 하여 체제 메카니즘의 혁신을 중점으로 문화체제의 개혁 심화를 견지하고 한 손으로는 공익성사업을, 다른 한 손으로는 경영성 문화산업을 잡아 중국문화의 실력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증강한다.

한손으로 번영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관리를 잡으면서 선진문화를 발전시키고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를 지원하는 것을 견지하여 뒤떨어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패한 문화를 제압하면서 국가의 문화안전을 유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문화건설이 건강하고 빠르게 발전하도록 한다.

도시와 농촌, 지역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새마을을 건설하는 요구에 따라 농촌 및 중서부지역에 대한 문화투입을 확대하여 도시가 농촌과 동중서를 이끌어 상호보완과 상부상조하는 발전의 구도를 형성한다.

(다)발전목표

2010년의 문화발전 총목표는 다음과 같다: "11차 5개년 계획"시기 사오강사회가 문화건설에 부여한 임무를 완성한다. 문화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능력이 뚜렷이 증가되고 경제의 발전, 정치의 안정과, 사회진보를 위해 강력한 사상보증, 정신동력과 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문화의 혁신능력과 전체 실력이 뚜렷이 제고되고 문화제품이 더욱 풍부해지며 인민군중의 기본문화 수요를 보다 훌륭히 보장하고 만족시키면서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문화의 공동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문화가 종합국력 경쟁 중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날로 부각되면서 문화발전 수준과 중국의 경제실력, 국제지위가 상호 적응되게 한다.

"11차 5개년 계획"시기 문화산업 발전의 중점

기층문화 건설에 힘을 기울여 농촌 및 중서부지역 공공문화 인프라시설을 크게 개선하며 공공문화 서비스체제를 개선하고 농민과 도시 저소득층의 기본문화 권리를 보장한다. "11차 5개년 계획"말까지 도시의 인프라시설, 서비스망과 문화제품을 통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서비스를 향유하려는 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농촌에서 농민군중이 책, 극, 영화, 방송을 보고 듣는 것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한다.

국가의 문화 이미지를 구축하는 중대한 항목과 공정건설에 힘을 기울여 민족특색을 보여주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국제 일류수준을 갖춘 문화예술 상품을 런칭하면서 인민군중의 수요에 적응하는 우수한 문화제품을 보다 많이 창작하고 생산한다.

문화산업 체제의 건설에 힘을 기울려 시장주체를 다시 세우고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며 중점적으로 발전하는 산업부류를 확정하고 문화제품 시장과 요소시장을 육성하고 현대유통 조직과 유통형식을 발전시키면서 공유제를 주체로 여러 가지 소유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문화산업 구도를 형성한다. "11차 5개년 계획"시기, 문화 및 관련 산업 증가치의 연평균 성장속도는 동일시기 경제성장의 속도보다 훨씬 높으며 국내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다.

문화혁신 능력의 건설에 힘을 기울리고 내용혁신을 핵심으로 혁신주체를 육성하는데 힘써 과학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중국문화의 자주적인 혁신능력을 높이고 중대 영향력이 있는 문화혁신 성과를 취득한다.

문화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실시에 힘을 기울리고 국제와 국내 두가지 시장, 2가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합작과 경쟁에 주동적으로 참가하면서 대외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대외문화무역을 확대하고 문화발전 공간을 확장하면서 중국문화제품 무역수지 격차가 비교적 큰 수동적인 국면을 초보적으로 개선하여 민족문화를 주체로 하고 외래의 유익한 문화를 흡수하면서 중화문화가 세계화로 나아가는 문화개방 구도를 추동한다.

인재교육에 힘을 기울려 우수인재가 많이 나오는 메카니즘과 사회환경을 만들어 규모가 크고 자질이 뛰어난 문화인력 풀을 육성하여 문화발전을 위해 튼튼한 인재보장을 제공한다.